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독일
	대학명	베를린기술대학교 (Berliner Hochschule für Technik)
파견기간	2024년 3월 ~ 2024년 8월	
프로그램	■ 정규 □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Betriebswirtschaftlehre(경영학)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가-1. 비자

독일 유학생 비자 발급은 국내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독일 현지에서 이민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방문 시 온라인 예약이 필수이며 예약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베를린 현지에서 발급받는 경우 워낙 외국인 체류자가 많고 일처리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급받고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국내에서 발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발급받는 경우 영사과 방문예약 사이트(https://service2.diplo.de/rktermin/extern/choose_realmList.do?sessionId=8AF472CEBE91D1EF15058CB382E8EA2B?request_locale=de&locationCode=seou)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2매, 독일대학 입학허가서(원본1부, 사본1부), 영문 재학증명서, 영어 또는 독일어 공인 인증점수 확인서, 강의 언어 확인서(강의 계획서에 영어 또는 독일어 수업이라는 페이지), 보험계약서 영문(독일 현지 보험), Motivation letter, 재정증명서(슈페어콘토)입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75유로로 원화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며 발급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② 현지(베를린)에서 발급받는 경우

저의 경우, 국내에서 대사관 방문예약을 잡는 데 실패하여 베를린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베를린 현지에서 발급받는 경우 한국인은 입국 후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므로 90일이 되기 전에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내에서 예약을 잡는 것보다 더 치열할 수 있으니 입국하자마자 예약 잡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예약은 ‘<https://otv.verwalt-berlin.de/ams/TerminBuchen?lang=en>’ 이 사이트를 통해 잡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이민청 근무 시간에만 예약이 풀리는 것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약잡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청에 메일도 함께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berlin.de/einwanderung/ueber-uns/kontakt/formular.1279374.php>’ 이 링크를 통해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예약을 잡아달라는 내용과 함께 전송하면 됩니다. 메일의 경우 답장을 받기까지 한달 정도 소요되며 답장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카드 발급까지 3~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바로 여권에 부착해주는 스티커 비자도 있지만 담당자에 따라 다르며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여권용 증명사진, 비자발급 신청서, 재정증명서(슈페어konto), 건강보험 증명서(기간 명시된 확인서), 교육기관 등록 증명서, 거주증명서(안멜둥)이며, 발급비용은 카드 100유로, 스티커 56유로로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가-2. 보험 및 슈페어konto

독일 유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및 현지 학교 등록을 위해 독일 현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비자 발급 시 재정증명을 위해 슈페어konto 개설이 필요한데, 저의 경우 엑스파트리오라는 사이트의 Value Package를 통해 보험과 슈페어konto 모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슈페어konto는 1달에 934유로씩(금액변동가능) 체류기간만큼 한번에 금액을 예치하고 매달 용돈처럼 입독 후 독일 현지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입니다. 보험의 경우 TK라는 공보험에 가입되며 현지 대학 개강 전까지는 여행자보험(Incoming Insurance)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활성화되고, 개강 후 엑스파트리오에서 TK 보험 활성화를 하면 여행자보험은 자동 취소됩니다. 슈페어konto의 경우 먼저 독일 현지 계좌를 개설한 후 엑스파트리오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 쿠폰을 메일로 받는데 이것과 함께 여권을 지참하여 우체국(postbank)에 방문하고 신원 및 거주지 확인을 마치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가-3. 항공권

저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직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 23kg 1개만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화물 1개를 추가로 약 1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외에도 독일항공사인 루프트한자도 직항편이 있는데, 루프트한자의 경우 학생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렴한 한색 할인 요금에 23kg 수화물 2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일정 변경 시 학생할인요금의 경우 무료로 1회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지사 고객센터로 전화 시에만 가능) 루프트한자의 경우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환승편도 같이 제공해주는 것 같으니 루프트한자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나. 필요 물품(집 꾸리기)

여름학기의 경우 3~5월까지의 경우 6월부터 봄~초여름날씨로 유지되기 때문에 4계절 옷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에도 베를린은 한국만큼 덥지 않고 중간에 쌀쌀해지기도 하니 이 점 감안하여 옷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류하는 동안 대부분 봄, 가을 날씨였음) 저는 옷, 드라이기, 고데기, 화장품, 비자 발급시 필요한 서류들, 노트북, 아이패드, USB, 필기구, 충전기, 변압기, 세면도구, 롤테이프클리너, 페브리즈, 옷걸이, 멀티탭, 거울, 상비약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기숙사 내에 이불, 와이파이 공유기, 냉방장치, 식기구 등이 없기 때문에, 이불, 식기구는 이케아에서, 공유기, 선풍기는 Media Market에서 그리고 나머지 욕실용품, 청소용품 등은 DM이나 Rossmann 또는 기숙사 근처 슈퍼마켓 REWE나 Netto, EDEKA 등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한 식수도 독일현지인들은 수도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석회질이 포함되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브리타 등 정수기를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독일 내 대형마트인 Kaufland에서 구매했습니다. 필터는 Ostbahnhof 내에 Rossmann에서도 구매가능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필터 샤워기 미리 가지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언어는 독일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영어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현지에서 영어로만 소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끔 독일어만 할 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자 인터뷰 때 만났던 이민청 직원, 포스트 직원, 학교 회계팀 직원 등 모두 독일어만 가능했습니다.) 문화의 경우 베를린은 외국인 거주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도 한식당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중동 음식 등 다양한 나라의 식당을 볼 수 있고, 길거리만 지나가도 여러 인종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외식물가의 경우 비싼 편이지만, 생활물가는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보면 일주일치 식재료 10~20유로로 충분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독일언어문화학과 학도로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언젠가 직접 독일에 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독일어로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수업에서만 접해왔던 독일의 문화를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독일 교환학생은 이러한 저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베를린기술대학교는 베를린이라는 수도에 위치해있어 독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기에 적합하고, 학교에서 버디프로그램, Cultural training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어 현지 친구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이 곳

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푸랑크푸르트암마인공항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방법은 비행기로 가는 방법과 기차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경우 루프트한자를 이용할 시 베를린으로 가는 환승편을 마련해주니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푸랑크푸르트공항에서 베를린 중앙역까지 기차를 이용했는데, 티켓 현장 구매 시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독일 공식 철도 앱인 DB 앱이나, 유럽 유럽 교통 예약 앱인 Omio 등을 통해서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독일의 KTX같은 고속열차인 ICE를 타고 오시는 편이 편리하며 좌석은 예약할 수 있지만 굳이 안해도 괜찮습니다. 푸랑크푸르트공항에서 기숙사가 위치한 Ostbahnhof까지 직행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없다면 베를린중앙역(Berlin Hauptbahnhof)까지 간 후 Ostbahnhof까지 독일의 전철인 S반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학교 정규 수강신청은 개강일인 4월 1일부터 약 2주간 신청가능했습니다. 저의 경우 학기 전에는 3주간 진행하는 독일어 수업인 German Intensive course를 수강했고, 학기 중에는 독일어 수업(German course) A2, B1 와 Cultural training 수업만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수강신청방법과 다르게 교환학생 담당자분의 안내에 따라 교환학생 신청 때부터 이용해온 Mobility online 사이트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German Intensive Course” 는 학기 시작 전 약 3주간 매일 4시간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배정이 이루어지며, 레벨테스트 컴퓨터로 문법, 독해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독일어로 진행되고,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다른 국적의 친구들로 팀을 꾸리게 하여 독일어로 주제에 대해 얘기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하고 파트너와 함께 학습지를 푸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험은 종강 전 한 번 보고, 듣기, 읽기 시험이었습니다. 말하기는 팀프로젝트로 독일과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학기 중 독일어 수업은 본인이 스스로 레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고 중복 수강이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A2, B1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A2의 경우 제일 낮은 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속해 있어 기초부터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위주로 가르쳐주셨고, B1 수업의 경우 교재가 있어 교재에 따라 진도를 나갔습니다. B1 수업의 경우 독일어로만 진행되고 수업 속도가 빠른편이라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또한 파트너나 팀을 이루어 독일어로 롤플레이팅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A2, B1 모두 기말 1번만 진행하고 듣기, 읽기 시험이었습니다. 추가로 수업참여도, 출석 등이 성적에 포함되었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독일은 보통 학교가 아닌 도시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베를린 기술대 또한 학교 내 기숙사는 따로 없고 Studierendenwerk Berlin를 통해 사설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기숙사는 Franz-Mehring-Platz3에 있고 Ostbahnhof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할 때 2층에서 Hausmeister를 통해 집계약서와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2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는데 충북대 학생들의 경우 2인실 1명, 4인실 4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4인실이었고 가격은 월 377유로 였습니다. (2인실의 경우 더 비쌌) 룸메이트는 국적이 다 다르게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4인실은 거실 1개, 냉장고1개, 욕실 2개(샤워기 1개)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방마다 키가 있고 혼자 사용합니다. 주방의 경우 공용주방으로 각 층마다 양 끝에 2개가 있습니다. 세탁은 E층에 세탁방이 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있고 집 키를 통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집 키 충전은 기숙사에 Mensa 트럭이 올 때 트럭에서 현금으로 충전 가능합니다.

나-5. 교내·외 활동

베를린기술대에서는 교내 활동으로 Cultural train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내에서 독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7회 이상 참여 시 3 ECTS를 인정해주고 추가로 2회 발표 시 5ECTS까지 인정해줍니다. 전부 야외활동으로 박물관, 동물원, 공원, 뮤지컬,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외 활동으로는 베를린에 다양한 Sport club이 존재하는데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 클럽 종류,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① 음식

저는 현지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 편이라 주로 한식 위주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쌀의 경우 독일 슈퍼마켓에서 냄비에 봉지채로 끓일 수 있는 쉽게 조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나옵니다. 한국 쌀과 가장 비슷한 형태와 맛을 가진 쌀로 Milch Reis가 잘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다른 쌀에 비해 비싸고, Langkorn은 형태가 길지만 맛은 비슷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한식 재료는 간장, 참기름, 고추장, 된장 등 조미료는 모두 한국 식료품점이나 아시아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근처에도 도보로 5분거리 이내에 아띠라는 한국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② 교통

독일은 독일 내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Semesterticket을 제공해주는데, 이를 통해 독일 내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트램, ICE등 고속열차를 제외한 기차)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기술대에서 개강일자에 맞춰 이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개강 전 한달 동안은 독일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티켓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singerstr. 버스정거장에서 142번 버스를 타고 Luxemburger Str.까지 한번에 가는 방법, Ostbahnhof에서 Friedrichstr.까지 S반으로 간 후 U6로 환승해 Leopoldplatz에서 내리는 방법, 또는 Ostbahnhof에서 Zoologischer Garten까지 S반타고 가서 U9로 환승해 Amrumer나 Leopoldplatz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느리지만 한번에 가고 2번째가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③ 일상생활

- 안멜둥(Anmeldung)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Bürgeramt라는 곳에서 안멜둥(거주등록, Anmeldung)을 해야합니다. Bürgeramt 역시 방문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필요합니다. Bürgeramt는 베를린에 구역별로 여러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예약을 잡아도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 예약의 경우 비자만큼은 아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예약 잡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보통 당일 취소표를 많이 잡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출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주확인증(기숙사 입주 시 전달 받음), 안멜둥 신청서, 여권입니다. 예약시간 맞춰서 Bürgeramt에 간 후 예약 확인 메일에 명시된 번호가 모니터에 뜨면 안내된 자리로 가서 안멜둥 하러왔다고 말하고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안멜둥 서류를 받으면 꼭 생년월일, 이름, 주소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 담당자가 실수를 하여 생년월일을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아채 다시 예약 잡고 재발급 받았습니다.)

- 독일 현지 유심 개통

독일 현지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 저는 현지 유심 Alditalk(알디톡)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알디톡 유심은 슈퍼마켓 ALDI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통 방법은 알디톡 홈페이지에서 심카드 등록 후 화상통화로 여권 및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 하고 확인메일 받고 유심을 끼우면 됩니다. (화상통화 시 영어 못하는 직원들도 꽤 있지만 접속 종료하고 계속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독일 계좌 개설

슈페어콘토에 묶어둔 돈을 받기 위해서 독일 현지 계좌개설이 필요합니다. 저는 N26이라는 독일의 온라인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N26 앱 설치 후 안내에 따라 개

인정보 입력 후 Standard plan으로 개설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화상통화가 있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권 홀로그램까지 조명을 켜서 자세히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 저도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두 번째 때 성공했습니다. 불친절한 직원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알디톡과 마찬가지로 여러번 시도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시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 프린트

독일에 있다보면 서류를 제출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 프린트를 해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린트의 경우 Alexanderplatz에 있는 DM 내에서 출력 가능하고, 구글지도에 Copy shop 검색해서 가까운데 이용하면 됩니다.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Alexanderplatz에 있는 DM입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베를린에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이 있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기 좋습니다. 시기만 잘 잡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은 비행기로 다녀왔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은 Flix Bus와 같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저렴한 대신 시간이 많게는 8시간 ~ 12시간 까지 소요됩니다. Flix Bus의 경우 Flix train도 있으니 Flix bus 앱을 깔아서 교통편 예매할 때 항상 가격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를린 근교에도 포츠담, 슈베린, 마그데부르크 등 예쁜 소도시들이 많은데 모두 Semester ticket으로 교통비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슈체친 같은 타국의 도시도 Semester ticket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겨울학기에는 옥토버페스트와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프랑스 파리의 경우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유럽학생비자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 혜택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가 갔던 학기에는 동양인이 저희 학교에서 온 5명의 한국인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럽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화차이가 조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 음식 등이 많이 알려져서 한국에 우호적인 친구들이 꽤 있으니 처음에 적응이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맞는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음식 또한 아무래도 주식인 한국과 많이 다르다 보니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독일 마트에 쌀도 팔고, 라면이나 만두 등 한식도 팔기도 하고, 베를린에는 한인마트도 많기 때문에 요리만 할 수 있다면 매일 한식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유럽친구들의 잦은 파티문화와 음식이 잘 맞지 않아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와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앞으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그런 뜻깊은 경험이었으니 여러분들도 독일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재밌는 경험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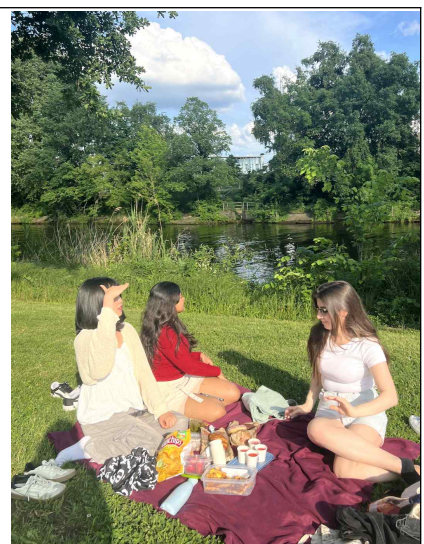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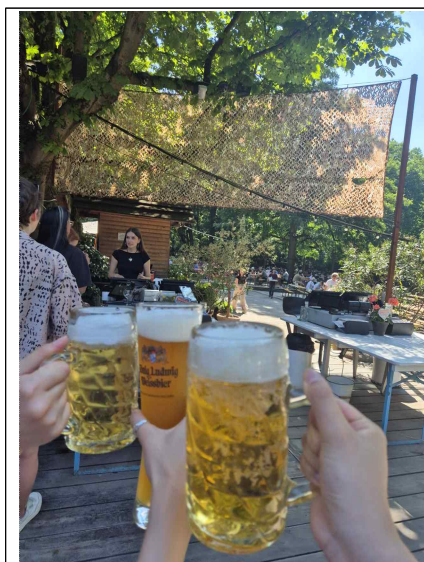
독일 지하철 U반



학교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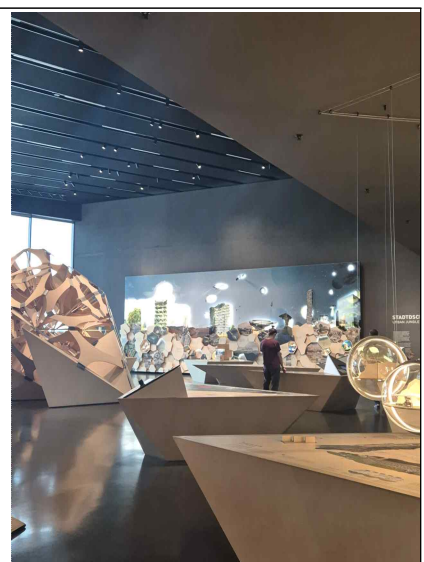
공원 피크닉



Biergarten



독일 영화관



Futurium 박물관